

非盧진영 대표 손학규-박지원 오찬회동

“앙금 털었다”... 당내 현안 의견 나누는 듯

6월 5대 이전 ‘비대위 조기 설치’ 공감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와 박지원 최고위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손 전 대표의 한 측근은 18일 “손 전 대표와 박 최고위원이 배석자 없이 만나 지난해 야권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앙금에 대해 심경을 밝히고, 최근 당내 현안 등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단독회동은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한국노동당과 ‘혁신과 통합’을 맺은 이후 처음이다.

이날 만남은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주자의 한 사람인 손 전 대표와 강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박 최고위원의 회동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4·11 총선 패배의 원인이 친노(친노무현)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이 확산하는 상황에 민주당 내 비노진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두 사람의 만남은 ‘친노’와 ‘비노’간 경쟁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당내 역학구도를 뚜렷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는 호남을 상징하는 박

최고위원과 수도권을 대표하는 손 전 대표가 연대할 경우 당의 주류인 친노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회동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손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두 분이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털어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정도의 자리였다”며 “당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 측도 “손 전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며 “(당 지도부정선 등 현안에 대해)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날

회동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히 복원되면서 당내 비노진영을 못지 않게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 전 대표와 박 최고위원은 4·11 총선 참패와 한명숙 대표 사퇴 이후 당 수습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 온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 사퇴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전대 2위인 문성근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하고 내달 초 비내대표직을 맡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고위원회 권한을 이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다수 최고위원이 주장한 ‘6월 전당대회 전까지의 문성근 체제론’에 맞선 박지원, 이용득 최고위원 등의 ‘비대위 조기 설치론’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측면 지원을 통해 비대위 조기 설치론을 거들었다. 손 전 대표는 한 전 대표 사퇴 표명 이후 모든 최고위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위 체제로 당 지도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민주통합 당선자들 22일 회동

원내대표 경선 지역 단일후보 추대 호남정치권 위상강화 논의 등 주목

광주·전남지역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오는 22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뤄지는 데다 4·11 총선 이후 민주통합당 내부의 역학구도가 미묘하게 얽혀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8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당선자들은 오는 22일 영광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서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은 호남 정치권의 위상 강화 문제와 차기 대선 정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19대 국회 당선자들의 상임위 진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동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

가운데 원내대표 출마 입지자가 이낙연, 김동철, 우윤근 의원 등 3~4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광주·전남 지역 단일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호남 표의 분산을 막아야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남 표의 결속은 오히려 수도권 등 타 지역 주자들의 결속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단일 후보 선출은 ‘약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드러내놓고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30표도 되지 않는 호남 정치권의 현실상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호남 정치권의 현실을 감안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19대 국회 당선자들의 회동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당내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총선 패배에 따른 비상대책위 구성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세력 구도가 ‘친노 대 비노’의 미묘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 정치권의 결집 여부는 문성근 대표 대행 체제 이후의 당내 역학구도 형성에 상당한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 정치권이 결집한다면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의 성향이 다른데다 신뢰 구조도 단단하지 않아 결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선 출마여부 가급적 빨리 결정할 것”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8일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가급적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신중하게 고려해서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 고문이 사실상 대선 출마쪽으로 기운 것이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 고문이 지난 5일 부산 유세 과정

에서 “국회의원 한번 허러 정치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 고문은 이날 방송에서 4·11 총선에서의 ‘낙동강 벨트’ 선거 결과에 대해 “부산 지역의 벽이 여전히 두텁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의석수는 욕심만큼 되지 않았지만 부산의 민심이 변했고 부산의 정치가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특히, 문 고문은 대선 출마설이 확산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

기술대학원장에 대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와 안원장의 지지가 합쳐져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안 원장과 힘을 합칠 방안을 모색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쪽과 안 원장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KTX 민영화’ 정치쟁점화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입장 표명 촉구

민주통합당은 ‘수서발 KTX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날 안에 내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표를 계기로 KTX 민영화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새누리 정권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KTX 민영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재벌에게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넘겨주겠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이용요금 500원 올리기로 한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민자사업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전기, 통신, 철도와 같은 기간산업 민영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99% 서민에게는 요금폭탄만 가

져온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사업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 고속철도는 운영을 20% 인하해도 15년간 1조원 가량 순이익이 남는 알토란같은 노선”이라며 “KTX를 민영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전에는 표를 의식해 총선 뒤 논의하자 하더니 선거 후 특유의 일연반구도 안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박 위원장을 압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조영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조영표(민·남구 1) 산업건설위원장은 18일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인증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은방,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추진

광주시의회 이은방(민·북구 6) 부의장은 18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생과 관련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토록 했으며, 학교 정수기와 저수조 수질검사의 경우 연 1회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의 행복 프로포즈!

새마을금고가 다양한 예금과 대출, 보험으로 행복한 프로포즈 합니다.



MG 새마을금고